

마음의 등불 밝혀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다

정진수행으로 참나 깨닫기를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山廣野百花爭發요
月色江光冷相照라.
撥開淨妙圓明眼하여서
識取唯我獨尊意이다.

산과 넓은 들에는 백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고
달빛과 강빛은 냉랭하게 서로 비추어라.
깨끗하고 묘하고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열어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이 홀로 높으신 이 뜻을
모든 이들은 바로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진리는,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리며 땅
흔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
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
한 동포들이 조국강산(祖國江山)에서 각자 맡은바 직분(職分)에
충실할 때, 그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
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
道)를 시현(示現)하는 그 곳이 부처님 오신 도량입니다.

우리겨레의 엄숙한 소명과 책무(責務)인 조국이 하나 되어, 남
북동포가 겨레의 얼과 동질성(同質性)을 회복하여 서로가 일사
안고 춤추며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는 그 때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중생들의 탐욕(貪慾)으로 인해 인간존엄(人
間尊嚴)과 생명존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전도(顛倒)되어 가공
(可憐)할 무기를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도리어 인류의
안전과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무상(無常)한 물질을 숭배하는 이
깊은 병통(病痛)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부모에게 나기 전
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라는 화두(話頭)를 들고 각고(刻苦)
의 정진수행으로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어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질인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宇宙)의 원리를 자
각하여 일체중생(一體衆生)이 비애(悲哀)와 고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實相)을 현실세계에서 수용(收容)하여 대자유해탈
(大自由解脫)의 경지(境地)에 이르도록 합니다.

불일(佛日) 밝혀 현세 정화하세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무수(無憂樹) 꽃비 흠날리는 사월
초파일, 광명을 놓아 세상의 못 아픔
을 쉬게 하려고, 부처님이 귀하신 몸
을 사바에 보여주시니, 군생(群生)
이 봉축하고 새날을 열어가도록, 함
께 한마음으로 신심을 다독여 서원
합니다.

부처님은 시공에 걸림이 없이 거래금 재재하여 중생이 있는
곳마다 자비의 손길을 내리시니 삼독(三毒)의 미혹은 사심(私
心)을 치성하게 하고 아상(我相)의 빛이 공도(公道)를 어렵게
하여도 청량한 감로법음(甘露法音)만은 귀담아 들읍시다.

미증유의 첨단기술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물질문명의 혜택
이 운해(雲海)처럼 넘쳐나도 세상에는 여전히 귀천의 차별이 도
를 더해가고 세사(世事)는 피아(彼我)의 시비에 빠져드니 자타
일여(自他一如)의 불심을 살려 구제합니다.

광복정국의 갈등이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병빈쟁(病貧爭)
의 중생고(衆生苦)가 깊어갈 시기에 각성종교(覺性宗教)의 자
주실천의 종문을 일으키고 의뢰하는 습성(非法)에 집착
하는 관습(慣習)을 밝게 정화(淨化)하신 진각성존의 원력에 귀
명합니다.

일광(日光)은 막구름 뒤에서 항상 빛을 내고 못 강물은 빠짐
없이 바다로 흘러들 듯이 중생의 청정한 해일(慧日)이 어둠을
견어내고 고하(高下)가 상보하고 빈부가 상생하여 화해의 온기
가 봄기운처럼 가득 피어나도록 예경의 마음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자비로운 봄바람이 지나는 들녘마다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움트고 희망으로 가득
한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며, 희망이라는 진리를 밝혀 주
셨습니다. 온 중생이 주인공이라는 환희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처님은 오로지 중생의 행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씩 갖고
있는 주인이므로, 신분의 귀천도 남녀의 구분도 재물의
많고 적음도 없는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가르
쳐 주셨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삶이 진정한
진리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아직 우리는 중생이기에 그 자리를 이기심으로 채

우기도 합니다. 중생사에서 비
롯된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으
로 인해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
다. 사회를 이루는 근본인 가족
공동체마저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의
새싹을 틔워 모든 생명을 감싸는 대자비의 연꽃 세상
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류와 민족의 번영, 남북의 화해와
평화 공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웃과 함께 하는 동
체대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
기 위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합니다.



탐욕 버릴 때 자신의 가치가 살아난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축복의 날, 부처님 오
신 날입니다.

우주법계의 참 진리를 가르치시고 일체중생의 존엄
과 평등 평화를 일깨우신 부처님의 탄신을 만 생명과
더불어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 한 송이 연
꽃이 피어 난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불변의
범항기를 온 누리에 비추고 있습니다. 영산에서 보이
신 한 번의 미소가 억겁 세월을 밝히고, 한 마디 말씀
이 억만 국토에 자비를 심었으니, 부처님의 마음이 바
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
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먼 곳
의 부처님을 맞이하는 날이 아
니라, 바로 자기 안의 부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
주법계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그 가르침을 장엄하는 것입니
다.

오늘 부처님오신날, 모든 사람이 본래불의 진면목
을 깨달아, 일체의 대립과 갈등, 전쟁과 테러의 공포
를 벗어던지고 화합과 평등, 자비와 평화, 광명의 등
불을 밝힙시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손잡고, 부처님께서 열어 보
이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길

진각종 총리원장 회정 정사

참고 70년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
서는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 나와 내
이웃, 생명을 가진 모든 유정들이 부처인 것을 자각하
면서 은혜를 배웁시다.

지혜롭고 자비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못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보살행(菩薩行)이야말로 부처
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의 자세요, 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생
각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
다. 진각기원 70년에 부처님오
신날을 맞이한 종단은 풍요롭
고 아름다운 행복세상을 만들
기 위해 연초 종책목표로 정했
던 혁신을 통한 진각 100년 불사의 토대마련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수행과 신행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봉사로써
희사바라밀'을 실천하며 개인의 인격완성과 현세를
정화하기 위한 불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
신날을 찬탄하고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인
류에 평화가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맑고 밝은 법의 본래 자리로 갑시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인연이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심을 다 같
이 봉축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
으므로 여래(如來)라 합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세계
에서 오셨으므로 여여하게 정변지(正遍知) 하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자격을
갖추셨기에 응공(應供)이라 하고, 공양을 올려야 합
니다. 가시는 발걸음 머무는 자리, 그 어느 곳이라도
부처님의 행보는 맑고 밝은 법의 자리이므로 명행족
(明行足) 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중생의
행복을 알게 하시고, 오셨다 가셨다 하므로 선서(善
逝) 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좋은 일과
그릇된 일을 잘 고르고 다스리
는 분이라 조어장부(調御丈夫)
하십니다.

신과 하늘까지도 감복하여
천인사(天人師)라 칭명하셨으
니 부처님(佛)이라 우러르고,
이 세상 모두가 존경과 찬탄하기에 세존(世尊)으로
사바세계에 오셨기에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
다.

마음 밝혀 불 밝혀서 불자님 가정과 삶이 부처님 같
이 닳아가는 정진 염불을 하며 부처님의 위대하고 숭
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찬탄하며 봉축합니다.



자비의 눈빛으로만 중생 굽어보자

총지종 총리원장 인선 정사

불자 여러분 성도 합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
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보다도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한 채 출가하
서 깨달음을 얻고, 그날로 만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고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 중생의 본질을 깨닫고, 불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자비의 눈빛으로 만 중생을 굽어보시는 부처님의 따

뜻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
습니다.

교도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는 부의 양극화로 많은 사회 갈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조금씩
양보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를 조건 없이 나누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다 더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합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
처님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길 서원합니다.



상생 실천하는 날이 되길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서 부처
를 찾아내는 밝은 길을 알려주셨고, 자
비와 지혜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즉 여래라는 희망의 종자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질병과 고통으
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몸소
실천해보이시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현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석존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잘 받들어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내 몸같이 수용하고, 더불어 그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나누면서 상생하는 삶을 실천하
는 서원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의 수없이 많은 인류의 끊임 없는 고통과 괴로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 오신 뜻의 근
원이고, 연기적 세계관의 실천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난한 여인이 지극정성을 다해 등을 껴다는 '빈자일등
(貧者一燈)'의 말씀처럼 우리도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성
을 일깨우고, 어둔 마음을 밝히기 위해 지혜의 등불을 켜는데도
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본래는 범부요, 성인이라는 분별도 없으나 어둠의 미혹으로 인
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부처님 현신하신 인
연으로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 모든
분들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우고 비워 부처 만나리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성품
빛나고 있듯 행복도 고통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구나.
역경 속에서 희망의 씨가 자라고
있으니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가 여기에 있도다.

마주 하면 떠오르는 해가, 등을 돌리니 지는구나.
부처님오신날을 지극히 맞이해야 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살아보면 짧기만 한 인생, 허망한 범부의 삶이라.
팔만 사천 법문도 모자라 채우려 또 채우려 애를 쓰는구나.
부처님보다 가진 게 없어 범부가 아니라 더 가져서
중생인 것을 잊지 말라.

오늘은 비우고 비워 무심(無心)으로
아기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날

타인 배려하는 마음 갖자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
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
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일깨
워 주기 위해서이며, 모든 중생들은 불
성이 있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자연도 생명이 있어 함께 더불어 살아나아가야 함을 교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때 부터 천한 자가 되는 것
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바리문외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
해 천한 자가 되고, 행위에 의해 바리문외 되는 것이다. 또한 태
어난 가문을 묻지 말고 그 행위를 물려라. 불은 온갖 습에서 일어
난다. 천한 집에서 태어난 자도 성자와 같이 도에 대한 뜻이 굳
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근신한다면, 곧 귀한 인간이 된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 보이지않는 계층
적 차별과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
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화합과 희망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중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겸양하고 화합하여 살
아가야 할 것입니다.